

피 흘리는 뱀파이어(와) 어머니의 몸

한희승**

르 파누의 「카밀라」에서 재현되는
아브젝트로서 어머니의 몸*

초록 이 논문은 조세프 세리던 르 파누의 「카밀라」에서 여성 뱀파이어인 카밀라와 그녀의 희생자 로라를 모두 어머니 인물로 읽음으로써,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을 하는 어머니의 몸이 뱀파이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주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아브젝트로서 뱀파이어 어머니의 몸이 빅토리아 시대 가부장제 제국에 갖는 위협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레즈비언 연인으로서 카밀라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어머니로서 카밀라가 갖는 의미는 이때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글은 뱀파이어 어머니로서 카밀라에 집중하며, 나아가 카밀라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재생산하는 몸이 텍스트에서 뱀파이어의 재생산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밝힌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몸이 어떻게, 그리고 왜 아브젝트가 되는지에 관해 논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이론을 바탕으로, 뱀파이어의 흡혈과 어머니의 재생산하는 육체가 텍스트에서 연결되는 지점을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아브젝트로서 뱀파이어 어머니의 몸이 나와 너의 경계가 무화된, 구분되지 않고 따라서 정의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주체'를 상상하게끔 만들으로써, 가정-제국을 수호하는 가정의 천사로서 어머니를 벗어난 '어머니'에 관한 새로운 인식에 도움을 주장한다.

주제어 조세프 세리던 르 파누, 「카밀라」, 뱀파이어, 어머니, 어머니의 몸, 크리스테바, 아브젝트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1. 들어가며

동유럽에 위치한 스티리아(Styria)의 작은 마을에 “이상한 전염병”이 돌았다.¹ 이 병에 걸린 이들은 잠이 든 사이 무엇인가가 자신의 목 근처를 공격하는 느낌을 받은 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삼일 정도 무기력중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했다. 이 병에 걸리고도 살아남은 행운아인 로라(Laura)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회고록을 썼다. 이 글이 조세프 셰리던 르 파누(Joseph Sheridan Le Fanu)의 중편소설 「카밀라」(Carmilla)이고, 이 병의 이름은 뱀파이어이다. 「카밀라」에서는 뱀파이어 카밀라의 공격이 그 정체가 파악되기 전까지, “불가사의한 병”, “역병 혹은 열병”과 같이 질병으로 불린다.²

뱀파이어와 질병의 연결은 다른 뱀파이어 문학작품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브램 스토키(Bram Stoker)의 『드라큘라』(Dracula)에서도 뱀파이어인 드라큘라에게 물린 루시(Lucy)는 병에 걸렸다고 여겨진다. 그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영국으로 호출된 인물이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병들에 해박한”, 철학가이자, 의사이자, 저명한 과학자인 반 헬싱(Van Helsing)이다.³ 그는 비록 루시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드라큘라라는 ‘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한다. 로렌조 세르비헤(Lorenzo Servitje)는 드라큘라와 질병, 특히 전염병의 상관관계를 빼어나게 분석하였다. 세르비헤에 따르면, 드라큘라는 무엇보다 “질병의 물리적 경계선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계급적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질병과 유비된다.⁴ 다시 말해, 질병이 물질적 그리고 사회적 경계들을 사실상 무시하며 퍼지

1 Joseph Sheridan Le Fanu (1872), “Carmilla,” *In a Glass Darkly* (ed. by Robert Trac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274.

2 Le Fanu (1872), p. 275, 266.

3 Bram Stoker (1897), *Dracula* (ed. by Maud Ellman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11.

4 Lorenzo Servitje (2021), *Medicine Is War: The Martial Metaphor in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New York: SUNY Press, p. 117.

듯, 드라큘라(그리고 뱀파이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구획된 지역, 계급, 성별 등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넘나들며 중국에는 그 구분을 무너뜨린다. 드라큘라(그리고 질병)가 일으키는 가장 큰 공포는 바로 나와 타자의 경계가 지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나 역시 환자가 될 수 있고, 뱀파이어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나 역시 환자 혹은 뱀파이어로 ‘정의’ 혹은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주체의 위치를 빼앗길 수 있다. 주체로서 ‘나’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드라큘라는 ‘나’가 주체로 존재하기 위해 억압하고 배척해야만 하는 “최고의 타자”, “타자성 그 자체”, “영국의 인종, 성, 계급, 그리고 첸더 규범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타자성의 혼합”이다.⁵ ‘나’는 “최고의 타자”로서 드라큘라를 나오는 접점이 전혀 없는, 다른 영역의 괴물로 만들려고 하지만, 질병과 뱀파이어의 유비 관계는 주체와 “최고의 타자”를 나누(지 못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다.

“정체성, 시스템, 질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경계, 위치, 규칙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⁶ 궁극적으로 나를 나와 타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곳, 즉 “의미가 붕괴하는 곳으로 끌고가” 나라는 주체의 구성과 보존을 위협하는 것.⁷ 이를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아브젝트(abject)라고 불렀다.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아브젝트는 나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나/타자, 안/밖의 대립”을 만드는 경계의 투과성을 상기시켜, 주체가 상정하는 내적·외적 완결성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린다.⁸ 오물, 고름, 배설물, 피, 그리고 “이에 대

5 Peter Kitson (2016), “Oriental Gothic,” *Romantic Gothic: An Edinburgh Companion* (ed. by Angela Wright and Dale Townshen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p. 181; Judith Halberstam (1993), “Technologies of Monstrosity: Bram Stoker’s *Dracula*,” *Victorian Studies* 36, Indiana University Press, p. 334; Servitje (2021), pp. 118-119.

6 Julia Kristeva (1982),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by Leon S. Roudie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4.

7 Kristeva (1982), p. 1.

8 Kristeva (1982), p. 7.

응하는 것들(부패, 전염, 질병, 시체 등)”이 대표적인 아브젝트이다.⁹ 이들은 몸 안에 있어야 하지만, 몸 밖으로 유출된 소위 “제자리에서 벗어난 물질”로, ‘나’와 ‘나’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경계가 사실상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드러낸다. 이들은 ‘나’의 안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나’의 것도 아닌, 그렇다고 철저히 타자도 아닌, “사이”(The in-between)의 무엇인가로 ‘나’라는 독립된, 완전한, 그리고 고정된 주체를 위협한다. 따라서 아브젝트에게 보이는 주체의 공포, 혐오, 구역질과 같은 아브젝시옹은 아브젝트를 오염물질로 배척하고 분리하여 완전히 자신의 경계 밖으로 보내고자 하는 주체의 보호 기제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크리스테바가 자기완결적 주체를 위협하는 아브젝트로 무엇보다 어머니의 몸을 꼽았다는 점이다.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개인은 “어머니 존재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초기 시도와 함께” 아브젝시옹을 경험한다.¹⁰ “하나의 분열, 하나의 분리, 하나의 주체/대상의 구성됨이 없는”(Without *one* division, *one* separation, *one* subject/object having been constituted)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존재했던 어머니와의 하나됨의 상태는 독립된 주체로서 ‘나’의 형성을 막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개인이 아버지의 법(the Law of the Father)이 지배하는 가부장적 상징계에서 주체로 위치하기 위해서는, 나와 타자의 경계를 무너뜨려 “전-대상(pre-objectal) 관계라는 아르카이즘”으로 손짓하는 어머니의 몸을 불결한 것, 비천한 것, 혐오스러운 아브젝트로 폄하하고 억압하여야 한다.¹² 빅토리아 시대의 가정, 젠더, 섹슈얼리티 담론을 지배한 육체가 없고, 순수하며, 영적으로 성스러운 가정의 천사(the Angel in the House)로서 어머니는 아브젝트인 어머니의 몸을 효과적으로 지운, 억압의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천사라는 추상적 이미지는

9 Kristeva (1982), p. 71.

10 Kristeva (1982), p. 13.

11 Kristeva (1982), p. 12.

12 Kristeva (1982), p. 10.

어머니의 몸이 주체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한 채, 가부장적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제국과 가정을 지속하고 수호하는 어머니의 역할만을 오랫동안 여성에게 부과하였다.

르 파누의 「카밀라」는 뱀파이어 문학의 중요 모티프인 피를 통해 가정의 천사라는 허상 대신, 아브젝트로서 어머니의 몸을 부각하여 드러낸다. 「카밀라」는 『드라큘라』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졌지만, 『드라큘라』만큼 활발하게 연구되지는 않았다.¹³ 하지만 여성주의 비평가들과 특히 퀴어 비평가들에게 「카밀라」는 뱀파이어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텍스트다. 이는 뱀파이어 카밀라가 오직 여성만 흡혈한다는, 드라큘라에게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뱀파이어가 전통적으로 “관습을 위반하는 섹슈얼리티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공했음을 고려했을 때, 비평가 대부분은 「카밀라」가 “전형적으로 레즈비언 욕망에 관한 이야기로 읽힌다”고 보았다.¹⁴ 실제로 로라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공공연히 그녀에게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는 카밀라는, 니나 아우어바흐(Nina Auerbach)의 말처럼, “빅토리아 시대나 그 어느 시대의 문학에서도 몇 안 되는, 스스로 인정하는 동성애자 중 한 명이다.”¹⁵ 카밀라의 동성애에 주목한 엘리자베스 시그노로티(Elizabeth Signorotti), 타마르 헬러(Tamar Heller),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 손영희 등을 포함한 여러 비평가들은 카밀라가 집 안의 여성을 ‘공격’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듦으로써, 카밀라와 로라의 레즈비언 관계가 가

13 스토키는 원래 조나단이 드라큘라 백작의 성으로 향하다가 카밀라로 추정되는 여성 뱀파이어를 마주치게 되는 내용을 『드라큘라』의 첫 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편집자의 반대로 이 장면은 소설에 실리지 못하고, 이후 「드라큘라의 손님」(Dracula's Guest)라는 제목의 단편으로 그의 단편집에 실리게 된다(Robert Tracy, "Introduction," *In a Glass Darkly*, pp. xxi-xxii).

14 Jarlath Killeen (2013), "An Irish Carmilla?," *Carmilla: An Edition with Critical Essays* (ed. by Kathleen Costello-Sullivan),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p. 99.

15 Nina Auerbach (1995), *Our Vampires, Ourselv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41.

부장제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남성들 간의 여성 교환을 방해함을 설득력 있게 밝혔다.¹⁶ 카밀라의 구애에 대한 로라의 반응 역시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몇몇 비평가는 로라와 카밀라의 관계를 “매력적이고, 순진하며, 수동적인—즉, ‘여성적인’—유혹 당하는 자와 … 더 나이가 많고, 지배적이며, ‘남성적인’ 유혹하는 자”¹⁷의 전형적 이성애 구도의 반복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상호적인 레즈비언 욕망과 거리가 멀다”¹⁸고 비판했지만, 카밀라의 사랑에 대한 로라의 감정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녀는 카밀라의 사랑표현에 때로는 기꺼이 응하지만, 때로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 대다수의 비평가는 로라의 이러한 모순적 감정을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투옥, 그리고 오래지 않아 사형과 다름없던 시기에 동성 간 욕망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갈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⁹ 게다가 카밀라가 처형된 후에도 그녀의 발소리를 듣는 로라의 환상으로 끝나는 소설의 결말은 결국 로라의 “카밀라에 대한 동성애적 욕망을 재확인”시켜 준다.²⁰

16 Elizabeth Signorotti (1996), “Repossessing the Body: Transgressive Desire in ‘Carmilla’ and Dracula,” *Criticism* 38,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pp. 607–632; Tamar Heller (1996), “The Vampire in the House: Hysteria, Female Sexuality, and Female Knowledge in Le Fanu’s ‘Carmilla,’” *The New Nineteenth Century: Feminist Readings of Underread Victorian Fiction* (ed. by Barbara Leah Harman and Susan Meyer), New York: London: Garland, pp. 77–95; David J. Jones (2014), *Sexuality and the Gothic Magic Lantern: Desire, Eroticism and Literary Visibilities from Byron to Bram Stoker*,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손영희(2021), 「르 파누의 『카밀라』에서 레즈비언 뱀파이어와 어머니의 귀환」, 『19세기 영어권 문학』 25, 19세기영어권문학회, pp. 65–94.

17 Howard L. Malchow (1996), *Gothic Images of Race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 140.

18 Helen Stoddart (1991), “‘The Precautions of Nervous People Are Infectious’: Sheridan Le Fanu’s Symptomatic Gothic,” *The Modern Language Review* 86, Modern Humanities Research Association, p. 32.

19 Amy Leal (2007), “Unnameable Desires in Le Fanu’s *Carmilla*,” *Names* 55, Routledge, p. 42.

20 손영희(2021), p. 88.

카밀라와 로라의 레즈비어리즘에 관한 비평은 뱀파이어 문학 연구뿐 아니라, 여성 동성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얼마 안 되는 19세기 소설 연구와 여성 간의 유대가 어떻게 가부장제를 위태롭게 하는지에 관한 페미니즘 연구에 크게 기여함이 틀림없다. 하지만 뱀파이어 레즈비언 연인으로서의 카밀라에만 몰두한다면, 그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인 뱀파이어 어머니로서의 카밀라를 지나쳐 버릴 위험이 있다.²¹ 카밀라와 어머니의 관련성을 무시하거나 그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몇몇 비평가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는 카밀라가 로라의 먼 어머니 쪽 조상임을 밝힘으로써, 노골적으로 뱀파이어와 어머니를 병치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텍스트에서 뱀파이어 카밀라의 흡혈이 임신, 출산, 그리고 모유수유와 같은 어머니의 몸에서 발생하는, 나가고 들어오는 유동체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뱀파이어 카밀라의 몸은 안과 밖, 아이와 어머니, 주체와 타자의 체액과 피가 뒤엉켜 그 경계가 무너지는 아브젝트로서 어머니의 몸을 때로는 무시무시하게, 때로는 매혹적으로 눈앞에 들이민다. 어머니의 몸과 뱀파이어의 연결은 앞서 “모든 형태의 타자성의 총합”인 드라큘라를 나와 전혀 다른 괴물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몸을 괴물화하여 그 위협을 텍스트 내에서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작가 혹은 텍스트의 의도와 상관없이, 뱀파이어 어머니의 몸이 근대적 주체에게, 그리

21 몇몇 비평가는 로라에 대한 카밀라의 사랑에서 “‘모성’과 ‘연인’ 사이의 공간이 겹침”을 지적하며, 레즈비언과 어머니로서의 카밀라를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Ardel Haeffel-Thomas (2012), *Queer Others in Victorian Gothic: Transgressing Monstrosity*,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p. 103. 이 외 손영희(2021) 참조.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뱀파이어 어머니로서의 카밀라는 좀 더 온전히 그 자체로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텍스트에서 카밀라가 어떻게 어머니상으로 재현되는지 혹은 텍스트가 ‘어머니’를 어떻게 뱀파이어와 연결시키고 있는지에 집중한 비평은 드물다. 오히려 시그노로티는 「카밀라」에 관한 대표적 초기 비평 중 하나인 그녀의 논문에서 카밀라가 어린 로라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후 곧바로 로라의 가슴을 공격하는 카밀라의 행동은 명백히 동성애의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카밀라]는 분명히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p. 621).

고 근대적 주체에 기반한 가부장적 제국주의에 가하는 위협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뱀파이어 어머니의 몸을 성공적으로 대체해야 할 가정의 천사는 텍스트에서 존재감을 잃고, 뱀파이어 어머니의 피범벅이 된 몸만 남아 아브젝트로서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뱀파이어 어머니로서의 카밀라 읽기는 「카밀라」가 전달하는 공포에 대한 새로운 이해뿐만 아니라, 가부장제 제국주의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부속품으로서가 아닌, 삶과 죽음, 괴물과 인간, 주체와 타자의 경계에서 다른 주체를 상상하게끔 만든 ‘어머니’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도울 것이다.

이 논문은 「카밀라」에서 어머니가 왜, 그리고 어떻게 뱀파이어와 연결되는지를 집중분석한다.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이론을 이용하여 카밀라를 분열된 어머니상으로 읽은 비평을 요약정리하며 발전시킬 것이다. 이후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카밀라 뿐만 아니라, 카밀라의 희생자인 로라, 나아가 모든 여성을 뱀파이어 어머니이자 뱀파이어 아이로 읽을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아이를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몸이 뱀파이어로 재현됨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 이론을 토대로 뱀파이어 어머니가 가부장제 제국주의에 가하는 위협을 고찰할 것이다.

2. 뱀파이어 어머니, 카밀라

뱀파이어와 어머니의 조합은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뱀파이어가 흡혈을 통해 희생자를 또 다른 뱀파이어로 만들 생각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니다. 주목할 점은 뱀파이어 어머니가 ‘재생산’하는 과정은 희생자를 삶과 죽음의 중간지대에 위치시키기에, 새로 ‘태어난’ 뱀파이어 아이는 더 이상 상징계에서 정의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여러 비평가는 뱀파이어가 아버지의 법이 개입하기 이전, 상징

계 너머에 위치한 전-오이디푸스적(pre-Oedipal)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바바라 크리드(Barbara Creed)는 희생자의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의 모습이 아이로부터 분리되기를 거부하며 아이(의 주체성)를 “집어삼키는 어머니”(devouring mother)를 형상화한 것이고, 특히 여성 뱀파이어의 경우 “엄마로서의 뱀파이어와 아이로서 그녀의 [희생자] 연인의 의존적 관계”를 더 잘 보여준다고 강조한다.²² 이때 “집어삼키는 어머니”라는 개념은 생후 초기 유아의 심리구조를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 속에서 밝힌 클라인의 정신분석 이론과 맞닿아 있다. 아이의 발달단계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중시하지 않은 어머니의 역할에 집중한 클라인은 아이의 분열이 아버지의 개입,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클라인에 따르면,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는 평화로운 하나됨의 상태가 아니라 “갈등, 공격, 그리고 불안”으로 점철된다.²³ 그 이유는 유아가 자신의 첫 번째 “대상”인 어머니의 젖가슴을 “좋은(만족시키는) 젖가슴과 나쁜(좌절시키는) 젖가슴으로 분열”시키기 때문이다.²⁴ 즉, 유아는 어머니를 총체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한다. 어머니(의 젖가슴)가 유아에게 충분한 젖을 주어 유아를 만족시킬 때는 좋은 젖가슴-어머니로, 젖을 물리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는 나쁜 젖가슴-어머니로 파편화하여 인지할 뿐이다. 더욱이 유아는 “[어머니의 몸속]을 파내고, 그 내용물을 삼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것을 파괴하려는” 새디즘적 공격성을 젖가슴에 투사하여 어머니를 “나쁜” 젖가슴으로 만든다.²⁵ 그렇기에

22 Barbara Creed (1993), *The Monstrous-Feminine: Film, Feminism, Psychoanalysis*,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 69-70.

23 Angelica Michelis (2003), “‘Dirty Mamma’: Horror, Vampires, and the Maternal in Late Nineteenth-Century Gothic Fiction,” *Critical Survey* 15, Berghahn Books, p. 12.

24 Melanie Klein (1946), “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s”, *Envy and Gratitude and Other Works, 1946-1963*, New York: The Free Press, p. 2.

25 Klein (1935), “A Contribution to the Psychogenesis of Manic-Depressive States,” *Love, Guilt and Reparation and Other Works, 1921-1945*, New York: The Free Press, p. 262.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는 순간마다, 기꺼이 “좋은” 젖가슴을 자신의 안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 대상[“나쁜” 젖가슴]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공포], 다시 말하면 아이가 두려워하는 박해자가 [자신을] 삼키고, [자신]의 몸 안을 파내고, 조각내어, 해칠 것”이라는 불안에 사로잡힌다.²⁶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안젤리카 미헬리스(Angelica Michelis)는 “뱀파이어를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에 관한 비유로 읽을 수 있다”고 본다.²⁷ 다시 말해, 희생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공포에 질리게 하는 뱀파이어는 클라인이 논한 분열된 어머니상이라 할 수 있다.

「카밀라」에서 뱀파이어 어머니로서의 카밀라에 집중한 소수의 비평은 대부분 클라인의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았다. 요약해서 말하면, “로라는 카르밀라를 자신을 만족시켜 주는 선한 어머니로 또한 자신을 해치는 악한 어머니로 분열시킨다.”²⁸ ‘나’를 돌보는 ‘좋은’ 어머니이자 ‘나’를 “잡어삼키고 파괴하는” ‘나쁜’ 어머니로서의 카밀라는 그녀가 로라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²⁹ 로라는 그 이후로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카밀라와의 첫 만남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한다.

6살 무렵, 어느 날 밤 잠에서 깨 침대에서 방을 둘러보았을 때, 나는 보모를 볼 수 없었다. 내 유모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 난 방치된 기분이 들어, 화가 났고 모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강하게 소리를 준비를 하며 훌쩍이기 시작했다. 그때, 놀랍게도 나는 근엄하지만 매우 예쁜 얼굴이 침대 옆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26 Klein (1935), p. 262.

27 Michelis (2003), p. 16.

28 김진옥(2015), 「레파뉴(Le Fanu)의 『카르밀라』(Carmilla): 뱀파이어 어머니」, 『신영어영문학』 60, 신영어영문학회, p. 104.

29 Michael Davis (2004), “Gothic Enigmatic Signifier: The Case of J. Sheridan Le Fanu’s ‘Carmilla’,” *Gothic Studies* 6, International Gothic Association, p. 233.

젊은 숙녀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이불 아래로 손을 넣었다. 나는 기쁜 놀라움으로 그녀를 바라보고는 흘쩍거림을 멈췄다. 그녀는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고, 내 옆에 누워, 미소 지으면서 나를 그녀 쪽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즉시 기분 좋게 진정이 되어 다시 잠들었다. 나는 마치 두 개의 바늘이 동시에 내 가슴에 깊이 박히는 듯한 감각에 잠에서 깨어 큰 소리로 울었다.

I can't have been more than six years old, when one night I awoke, and looking round the room from my bed, failed to see the nursery maid. Neither was my nurse there; and I thought myself alone. ... I was vexed and insulted at finding myself, as I conceived, neglected, and I began to whimper, preparatory to a hearty bout of roaring; when to my surprise, I saw a solemn, but very pretty face looking at me from the side of the bed. It was that of a young lady who was kneeling, with her hands under the coverlet. I looked at her with a kind of pleased wonder, and ceased whimpering. She caressed me with her hands, and lay down beside me on the bed, and drew me towards her, smiling; I felt immediately delightfully soothed, and fell asleep again. I was wakened by a sensation as if two needles ran into my breast very deep at the same moment, and I cried loudly. (246)³⁰

어린 로라가 잠에서 깨자마자 느낀 감각은 고통감 혹은 외로움이다. 그런데 이 홀로 있음에 대한 로라의 반응이 흥미롭다. 그녀는 혼자 있어서 무섭거나 놀란 것이 아니라, “방치된 기분이 들어, 화가 나고 모욕감이 들었다”고 말한다. 비터는 이 장면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로라의 “어머니에 대

— www.kci.go.kr

30 Le Fanu (1872), p. 246.

한 갈망”이 드러난다고 보지만,³¹ 로라의 감정은 그보다는 자신을 돌봐주어야 할 어머니 “대상”이 좌절된 아이의 공격성에 가깝다. 이때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녀를 “어루만지”는, 즉 그녀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존재가 카밀라이다. 하지만 ‘좋은’ 어머니로 등장한 카밀라는 동시에 로라의 가슴을 공격하여 고통을 주는 “좋은 어머니의 대립항”, 혹은 “악마적 그림자 어머니”가 된다.³² 분열된 어머니로서의 카밀라에게 로라가 보이는 애착과 증오를 넘나드는 양가적 태도는 이들의 첫만남부터 예견되었다.

클라인의 이론을 토대로 카밀라와 로라의 관계를 읽은 훌륭한 분석들은 텍스트가 어떻게 상징계에서 억압된 “집어삼키는 어머니”를 복원하고 있으며, 그녀가 가부장제에 어떠한 위협을 가하는지를 여러 층위에서 밝혔다.³³ 우선 “집어삼키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남성을 “집어삼키는, 성적 욕구가 왕성한 여성에 대한 공포”와 관련 있다.³⁴ 헬러에 따르면 “빅토리아 시대의 생리학 이론에서” “여성 생식 계통은 ... 성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과 연관”되었다.³⁵ 다시 말해, 여성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인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여성 섹슈얼리티를 가부장제 사회가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내포한다. 이 맥락에서 카밀라의 로라에 대한 공격은 막을 수 없는 여성의 (괴물적) 섹슈얼리티를 나타낼 뿐 아니라, 이 공격이 ‘좋은’ 어머니의 “어루만짐”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집 안의 천사로서 어머니 신화를 무너뜨린다. 또한 “집어삼키는 어머니”의 위협은 제국과 가부장제 구조의 근본적 중심에 자리한

31 Veeder (1980), p. 206.

32 Haefele-Thomas (2012), p. 103; Veeder (1980), p. 215. 물론 이 장면에서 카밀라의 “어루만지기/애무”와 가슴을 무는 공격은 동성애의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카밀라와 로라의 관계가 레즈비언 연인이라는 분석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와 아이의 역할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33 김진옥(2015); Michelis (2003) 참조.

34 Heller (1996), p. 79.

35 Heller (1996), p. 78.

근대적 주체의 개념을 동요시킨다. 뱀파이어 어머니인 카밀라의 구체적 공격 방식은 희생자의 몸에 이빨을 박아 피를 빼는 흡혈이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의 몸 안에 있어야 할 피가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흡혈을 하는 뱀파이어의 타액과 섞이며 뱀파이어가 낸 이빨 구멍을 통해 (나의)피와 (타인의) 타액의 혼합물이 몸 밖으로 흘러나가고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뱀파이어의 흡혈은 “희생자의 신체 경계(the fleshly contours)를 없애는” 행위인 것이다.³⁶ 희생자-아이가 뱀파이어-어머니에게 문자 그대로 집어삼켜지게 되면서, 아이와 어머니의 “분리됨은 용해”되고 이는 곧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독립된 주체로서 아버지의 법이 지배하는 상징계로 진입하는 것에 실패함을 의미한다.³⁷ 아이를 “집어삼키는” ‘나쁜’ 어머니가 상징계 질서를 집어삼켰다.

“집어삼키는 어머니”가 상징계에 위치한 주체에게 가하는 위협을 고려한다면, 로라가 뱀파이어 어머니로서의 카밀라에게 보이는 모순된 태도를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로라는 카밀라와 함께할 때면, “즐겁고, 기묘한 떠들썩한 흥분을 경험”하지만, “때때로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고백한다.³⁸ 이때 로라가 카밀라의 사랑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빠져드는 순간과 격렬히 거부하며 반항하는 순간은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로라는 카밀라가 그녀를 껴안을 때 “이 어리석은 포옹으로부터 …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속삭이는 단어들은 귓가에 자장가처럼 들렸고, [로라의] 저항을 달래 무아지경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다. 오직 “[카밀라가] 자신의 팔을 뻗을 때만, [로라는] [그녀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다.³⁹ 여기서 카밀라의 포옹과 자장가처럼 들리는 속삭임은 크리스테바가 말한 기호계(the semiotic)의

36 Jones (2014), p. 47.

37 Michelis (2003), p. 6.

38 Le Fanu (1872), p. 264.

39 Le Fanu (1872), p. 264.

‘언어’이다. 기호계의 ‘언어’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와 어조, 그리고 육망의 직접적 표현과 어머니 상(maternal figure)과의 신체적 접촉과 관련된 언어의 전-언어적(pre-verbal) 차원”을 가리킨다.⁴⁰ 카밀라의 뜨거운 포옹과 알아들을 수 없지만 자장가처럼 “들리는” 소리는 분명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언어기호들(*linguistic signs*)의 의미도 아니고 언어기호가 세운 상징적 질서(*the symbolic order*)의 의미도 아니다.”⁴¹ 질서를 만들어 내는 상징계의 “언어가 어머니의 권위를 억누름으로써” 대상을 분리하는 의미 작용을 한다면, 카밀라의 포옹과 목소리라는 기호계의 ‘언어’는 어머니와의 분리 이전의, 어머니의 세계로의 복귀를 속삭인다.⁴² 로라는 카밀라가 이끄는 이 세계에서 “[그녀 자신]”을 잇는 문자 그대로 “무아지경”의 황홀경에 빠지게 된다. 반면, 로라가 카밀라의 사랑을 거칠게 뿌리칠 때는 언제나 쌍방의 소통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카밀라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 될 거야, 너와 나는 영원히 하나야.”라고 열렬히 사랑을 고백할 때면, 로라는 카밀라에게 “너는 **그러면 안돼**(*you must not*), 난 그거 싫어.”라고 말하며 명백한 거절 의사를 보일 뿐만 아니라, 카밀라의 사랑을 금지시킨다.⁴³ 그리고 카밀라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묻는다.⁴⁴ 어머니의 세계는 상징계의 언어로 의미화될 수 없고, 억압의 수면 위로 떠올라서도 안 된다. 따라서 카밀라에 대한 로라의 사랑과 증오는 상징계 이전의 어머니의 세계에 대한 끌림과 동시에 여기에서 비롯된 독립적 주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시사한다.

40 Creed (1993), p. 14.

41 Julia Kristeva (1982),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by Leon S. Roudie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72.

42 Kristeva (1982), p. 72.

43 Le Fanu (1872), pp. 264-265. 필자 강조.

44 Le Fanu (1872), p. 264.

3.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몸과 뱀파이어

뱀파이어 어머니인 카밀라가 상징계에 가하는 다층적 위협은 그녀가 왜 거부장 남성들에 의해 결국 처형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카밀라」의 위협은 카밀라의 처형과 함께 갈무리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카밀라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로라의 환상으로 소설이 끝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텍스트가 전하는 완전히 억압되지 않는 공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밀라」가 재현하는 어머니 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로라를 또 한 명의 어머니로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금까지 비평에서 어머니로서의 로라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⁴⁵ 하지만 로라는 카밀라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카밀라의 동성애 연인이자, 딸이자, 어머니의 모습을 모두 보인다. 앞서 인용한 로라와 카밀라의 첫 만남 장면은 그녀들이 재회했을 때, 카밀라의 시점에서 다시 서술된다. 카밀라와 로라, 각각의 서술에서 일어난 사건은 비슷하다. 하지만 로라의 이야기에서는 어린 로라가 어른인 카밀라를 보았다면, 카밀라의 시점에서는 카밀라 자신이 6살 무렵이었고 침대 위에서 “황금빛 머리칼과 큰 푸른 눈을 가진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 “지금 여기에 있는 [로라],” 즉 어른인 로라를 보았다.⁴⁶ (가정의) 천사의 전형 같은 로라의 외모에 반한 카밀라는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 그녀

45 극소수의 비평가가 로라를 카밀라의 어머니로 읽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지만, 대부분 이들의 초점은 로라가 아닌 카밀라에 맞춰져 있다. 예를 들면, 한혜정은 “체액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빨리는 쪽의 무언의 초대/허락이 있다는 점에서 뱀파이어 희생자와 어머니 사이에는 구조적인 상동성이 존재”함을 지적하였으나, 「카밀라」에서는 특이하게 “카르밀라[가] 어머니상으로 제시되며 이 구조를 뒤섞는다”고 말하며, “괴물/어머니와의 조우”가 로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주목하였다. 한혜정(2012), 「괴물, 어머니, 소녀: 「고블린 시장」과 「카르밀라」의 로라」, 『외국문학연구』 48,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p. 356-357.

46 Le Fanu (1872), p. 260.

를 꺼안았고 … [그들은] 잠이 들었다.”⁴⁷ 로라의 서술에 따라 이 순간 카밀라가 로라의 가슴을 물었다면, 카밀라의 깨물기는 충분히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로라는 피/우유라는 영양분을 제공하는 카밀라의 엄마인 것이다.⁴⁸ 이 맥락에서 흡혈을 통해 카밀라에게서 로라에게로 “금지된 (성적) 지식”의 전달 혹은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⁴⁹ 카밀라의 흡혈은 비유적 의미에서 “(성적) 지식”의 전달로 로라의 성적 욕망을 일깨웠을 뿐 아니라, 로라의 몸 자체를 어머니의 몸으로 만들었다.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성의 몸의 잠재성을 무시무시하게 상기시켰다.

로라에 대한 카밀라의 사랑 역시 어머니와 하나가 되고 싶은 아이의 욕망으로 읽을 수 있다. 다만 로라가 카밀라-어머니에 대한 양가적 감정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과는 달리, 카밀라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다. 카밀라는 자신이 로라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엄청난 굴욕의 황홀함”이라 표현한다.⁵⁰ 카밀라가 “굴욕”을 느끼는 이유는 단지 그녀가 로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카밀라-아이가 로라-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주적 주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버림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는 주체에게 “엄청난 굴욕”이다. 하지만 이로써 카밀라는 로라-어머니와 하나됨이라는 “황홀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카밀라의 표현을 빌려 다른 말로 하면 “잔혹함의 황홀함”이다.⁵¹ 주체의 죽음을 필연하기에 “잔혹”하지만

47 Le Fanu (1872), p. 260.

48 사실 카밀라 역시 그녀가 뱀파이어의 공격을 받았을 때, 가슴을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이 “침대에서 거의 암살될 뻔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카밀라는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선” “여기에 부상을 입었지 …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 예전 같지 않았어.”라고 말한다(Le Fanu, p. 276). 카밀라가 간략하게 묘사한 “암살” 상황은 카밀라와 로라의 첫 만남과 매우 유사하다.

49 한혜정(2012), p. 357.

50 Le Fanu (1872), p. 263.

51 Le Fanu (1872), p. 263.

“황홀”한 경험, 이를 카밀라는 아주 명확하게,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야.” 라고 선언한다.⁵² 이제 우리는 카밀라가 자주 속삭이는 사랑과 죽음의 연결고리를 보다 명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카밀라는 곧잘 로라에게 사랑을 통해 이들은 “함께 죽고,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한다.⁵³ 사랑-하나됨-죽음의 고리는 “성적 결실의 순간이 전통적 통합된 자아의 소거를 일으킬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성적 욕망이 뒤섞인” 꽤 혼란 사랑에 대한 관습적 비유이다.⁵⁴ 하지만 카밀라는 사랑-죽음-하나됨의 연결고리에 언제나 삶을 추가한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나는 너의 따뜻한 생명 속에 살고, 너는 내 생명 속으로 달콤하게 죽을 거야.”⁵⁵ 카밀라의 이 알쏭달쏭한 사랑 고백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는 것인지는 모호하다. 로라는 카밀라 안에서 죽고, 카밀라는 로라 안에서 산다면, 이들은 과연 죽었는가 아니면 살았는가?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 상징계에서 정의 내릴 수 없는 상태, 삶과 죽음,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이”(in-between)의 공간에 뱀파이어 카밀라는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세상에서의 죽음을 기꺼이 불사하고 (어머니-)로라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카밀라의 사랑의 공간이다.

즉, 우리는 뱀파이어로서 희생자를 또 다른 뱀파이어로 만드는 카밀라 뿐만 아니라, 희생자인 로라 역시 뱀파이어 아이에게 모유와 사랑을 주는 어머니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어머니가 될 여성은 모두 뱀파이어이며, 이 뱀파이어 어머니는 가정과 제국을 수호할 가정의 천사가 아닌 또 다른 뱀파이어 여성을 낳을 것이라는 무서운 가정으로 이어진다. 뱀파이어 아이를 낳는 뱀파이어 어머니에 대한 공포는 여성의 몸에 집약되어, 어머니의 몸에 대한 통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될 수 없

52 Le Fanu (1872), p. 263.

53 Le Fanu (1872), p. 270.

54 Christopher Craft (1984), “Kiss Me with Those Red Lips’: Gender and Inversion in Bram Stoker’s *Dracula*”, *Representations* 198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07.

55 Le Fanu (1872), p. 263.

는 어머니의 몸에 대한 불안함을 동시에 드러낸다. 뱀파이어 아이인 카밀라의 가슴 깨물기가 로라의 몸에 남긴 자국은 통제되어야 할 어머니 몸의 표지다. 로라는 어느 날 밤 “갑자기 커다란 바늘 두 개가 1, 2인치 간격으로 가슴에 깊숙이 박히는 듯한 따끔한 통증을 느끼”고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어두운 혈령한 드레스를 입고” “침대 발치에 서 있는 여성”을 보았다.⁵⁶ 물론 독자는 이 여성이 카밀라이고, 로라가 잠든 사이 카밀라가 그녀의 가슴을 물었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후 로라의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밤에 카밀라에게 물린 후, 로라는 “깊이 잠을 잤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똑같은 나른함을 느꼈고, 하루 종일 무기력에 빠졌다.”⁵⁷ 이는 “초콜릿 한 잔만 마실 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언제나 무기력하며 나른한 카밀라의 상태와 상당부분 겹친다.⁵⁸ 그리고 카밀라와 로라의 비슷한 증상은 빅토리아 시대 의학서와 품행서에서 경고하는 “어머니가 잠든 후, 아이가 젖을 빨도록 놔두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제 언급할 악은 어머니가 잠든 후, 아이가 젖을 빨도록 놔두는 가장 해로운 관행이다. … 유아가 안일하게 분비된 모유를 통제 없이 배가 터지도록 흡수하게 가만 두는 것은 유아에게 해롭다. 다른 한편으로, 어머니는 현기증, 흐릿한 시야, 메스꺼움, 식욕 부진을 동반한 축축한 탈진 상태에서 깬다. … 사실, 그녀는 그녀의 아기 뱀파이어로 인해 열증과 소모열 홍조를 띠며 잠에서 무기력하고 상쾌하지 않게 깨어난다. 그리고 아기 뱀파이어는 어머니로부터 그녀의 건강과 기력을 빨아먹어 사실상 정반대의 증상들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기능성장애”라는 똑같이 해로운 결과를 낳을 뿐이다.

56 Le Fanu (1872), p. 278.

57 Le Fanu (1872), p. 281.

58 Le Fanu (1872), p. 265.

The evil we now allude to is that most injurious practice of letting the child *suck* after the mother has *fallen asleep* ... It is injurious to the infant by allowing it, without control, to imbibe to distension a fluid sluggishly secreted ... while the mother wakes in a state of clammy exhaustion, with giddiness, dimness of sight, nausea, loss of appetite ... In fact, she wakes languid and unrefreshed from her sleep, with febrile symptoms and hectic flushes, caused by her baby vampire, who, while dragging from her her health and strength, has excited in itself a set of symptoms directly opposite, but fraught with the same injurious consequences—“functional derangement.”⁵⁹

이사벨라 비튼(Isabella Beeton)의 『가정관리서』(*The Book of Household Management*, 1861)에 실린 위 대목은 뱀파이어 아이인 카밀라에게 “안일하게” 피-젓을 빨린 로라의 상태와 로라-어머니의 피-젓을 “통제 없이 배가 터지도록” 마신 뱀파이어 아이 카밀라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한다.⁶⁰ 또한 아이에 의해 위험에 빠지고, 동시에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나쁜 어머니의 대표적 증상들-현기증, 식욕부진, 무기력증-은 뱀파이어 어머니인 카밀라의 증세이기도 하다. 로라와 카밀라는 이처럼 둘 다 빅토리아 시대의 위험한 어머니와 연결된다. 더욱이 비튼은 이 위험한 어머니에게서는 “기능성장애”를 가진 위험한 아이, 즉 아기 뱀파이어가 탄생함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비튼의 일침은 「카밀라」에서 사실상 현실화되었다. 카밀라와 로라라

59 Sally Shuttleworth (1992), “Demonic Mothers: Ideologies of Bourgeois Motherhood in the Mid-Victorian Era”, *Rewriting the Victorians: Theory, History, and the Politics of Gender* (ed. by Linda M. Shires), London: Routledge, p. 42에서 재인용. 필자 강조.

60 어머니-로라로부터 “건강과 기력을 빨아먹은” 아이-카밀라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조용히 [카밀라]의 외모를 [로라]와 비교하던 [로라의] 아버지”가 인정하듯,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카밀라]의 옅은 홍조(tints)”는 점점 창백해져 가는 로라의 얼굴과 대비된다(Le Fanu, p. 287).

는 어머니의 몸은 뱀파이어 로라와 뱀파이어 카밀라를 ‘낳았다.’

실제로 텍스트에서 뱀파이어가 ‘탄생’하는 과정은 어머니의 배 속에 있는 태아의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로라는 카밀라에게 흡혈을 당했을 때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묘사한다.

어떤 모호하고 기이한 감각이 잠든 나를 덮쳤다. 가장 지배적인 느낌은 우리가 강의 물살을 거슬러 목욕할 때 느끼는 유쾌하고 독특한 차가운 전율이었다. 끝이여 끊임없이 꿈들이 이어졌다... 이 모든 꿈을 끝 후 일어나면, 매우 어두운 장소에 있었던 기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억이 남아 있었다. 특히 마치 멀리서 천천히 말하는 듯한 여성의 맑고 깊은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나는 목이 졸린 듯 오열하다가 끔찍한 발작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는 감각과 의식을 잃었다.

Certain vague and strange sensations visited me in my sleep. The prevailing one was of that pleasant, peculiar cold thrill which we feel in bathing, when we move against the current of a river. This was soon accompanied by dreams that seemed interminable ... After all these dreams there remained on waking a remembrance of having been in a place very nearly dark, and of having spoken to people whom I could not see; and especially of one clear voice, of a female's, very deep, that spoke as if at a distance, slowly ... My heart beat faster, my breathing rose and fell rapidly and full drawn; a sobbing, that rose into a sense of strangulation, supervened, and turned into a dreadful convulsion, in which my senses left me and I became unconscious.⁶¹

61 Le Fanu (1872), p. 282.

위 대목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경험”으로 읽어도 손색이 없다.⁶² 아우어바흐는 이 장면을 통해 “르 파누는 피에 얽매이지 않고, 물이 뱀파이어의 매체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로라가 헤엄치는 공간은 피와 물이 섞인 어머니의 양수에 대한 비유로 읽을 수 있다.⁶³ 이 속에서 “유쾌”하게 떠다니던 로라는 “멀리서” 태아에게 “천천히” 말을 거는 “맑고 깊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어머니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로라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태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지는 고통을 느낀다. 편안한 양수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폐로 공기를 마시는 태아는 “목이 졸리는 듯”한 느낌에 “오열”과 “발작”을 하게 되고, 마침내 어머니의 배 밖으로 나와 어머니와 하나였던 “감각과 의식을 잃는다.” 이후 로라는 “자신이 변했음을 느꼈다”(I felt myself a changed girl)고 말한다.⁶⁴ 로라는 실상 “달라진 소녀”가 된 것이 맞다. 그녀는 카밀라의 흡혈을 통해 뱀파이어로 새로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하나됨을 거리끼지 않고 이미 상징계가 아닌 어머니의 세계의 존재인 카밀라의 ‘집’ 역시 태내와 비슷한 관이다. 뱀파이어 카밀라는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그녀의 관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쉬어야 한다. 관 속에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둡고 편안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아늑히 자리 잡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와 같다.⁶⁵ 그녀의 얼굴은 “삶의 온기로 물들어” 있고, 그녀의 몸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호흡과 심장 박동에 상응하는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녀의 “팔다리는 더없이 유연했고, 피부는 팽팽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납 관 바닥에서 7인치 높이까지 고여 있는 핏물에 잠긴 채 누워 있었다.”⁶⁶ 카밀라가 매일 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62 손영희(2021), p. 81.

63 Auerbach (1995), p. 43.

64 Le Fanu (1872), p. 281.

65 Creed (1993), p. 69.

66 Le Fanu (1872), p. 315.

는 관-자궁 안에서 피-양분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뱀파이어-아이 카밀라는 끊임없이 “자궁-안 재-탄생(intra-uterine re-creation)”을 거쳐 이름과 모습을 바꿔가며 결코 상징계에서 정의될 수 없는 ‘괴물’로 언제나 돌아온다.⁶⁷ 더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 괴물-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로라만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카밀라의 관 속에 고여 있는 피를 그녀에게 물린 모든 여성들의 피-양수로 본다면, 결국 모든 여성-어머니가 카밀라-뱀파이어를 ‘낳은’ 셈이 된다.

텍스트는 카밀라의 몸을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뿐만 아니라, 아이를 배고 낳는 어머니의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더욱 기괴하게 만든다. 카밀라의 ‘임신’한 몸은 그녀가 로라 이전의 희생자인 슈피엘스도르프 장군(General Spielsdorf)의 조카, 버사(Bertha)를 흡혈하는 장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카밀라가 버사를 무는 광경을 목격한 장군은 “크고 검은, 형체가 불분명한 물체가 … [버사의] 목을 향해 재빠르게 몸을 쭉 펼치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고동치는 덩어리로 부풀어올랐다.”라고 말한다.⁶⁸ 손영희와 비더는 이 부풀어오른 “고동치는 덩어리”를 “남근모양으로 부푼 뱀파이어”로 읽었다.⁶⁹ 마이클 데이비스(Michael Davis)는 이에 더해

67 Sue-Ellen Case (1991), “Tracking the Vampire,” *Differences* 3, Duke University Press, p. 14. 에이미 릴(Amy Leal), 헬렌 스토드다트(Helen Stoddart), 미헬리스를 비롯한 많은 비평가들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카밀라의 철자를 바꾼 이름들-미르칼라(Mircalla), 밀라카(Millarca), 카밀라(Carmilla)-이 그녀를 “불가사의한 기표”로 만들며 “그녀의 의미(들)을 부절히 다르게 하고 연기함(differs and defers)”을 지적하였다[Davis (2004), p. 233]. 다시 말해, 카밀라의 이름은 기의가 고정되지 않은, 텅빈 “언어 기호”[Stoddart (1991), p. 31]로서, 그녀의 “정체성의 유동성”[Heller (1996), p. 81]을 시사한다. “무시무시하게 큰 고양이”[Le Fanu (1872), p. 278]에서 “거대하게 고동치는 덩어리”(Le Fanu, p. 311)까지 자유자재로 변하는 카밀라의 몸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가부장적 틀로 한정할 수 없는 차이의 기호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한혜정(2012), p. 362]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Signorotti (1996), p. 615; Paulina Palmer (1991), *Lesbian Gothic: Transgressive Fictions*, London and New York: Cassell, p. 101 참고.

68 Le Fanu (1872), p. 311.

69 Veeder (1980), p. 205.

이 이미지를 “아버지 인물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를 위협하는 어머니 남근의 숭배(maternal phallicism)”라 분석한다.⁷⁰ 뱀파이어의 흡혈이 전통적으로 성관계의 은유로 해석됨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 하지만 흡혈을 당한 로라가 자궁 안에 있는 태아와 비슷한 상태였음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순식간에 거대한, 고동치는 덩어리로 부풀어오른” 카밀라의 몸은 발딱거리는 아이를 뱀 여성의 몸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장군을 공포에 질리게 만든 것은 바로 임신한 여성의 몸 그 자체이다.

카밀라의 몸은 여성의 출산하는 몸과도 연결된다. 로라는 “암살을 조심하라고 네 어머니가 경고한다”는 기묘한 목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자마자, “예기치 않게 솟구친 빛” 속에서 “턱에서 발끝까지 커다란 핏자국으로 목욕을 하고 … 서 있는 카밀라를 보았다.”⁷¹ 스토르다트, 헬러, 그리고 데이비스를 포함한 여러 비평가들은 이 장면을 로라의 ‘좋은’ 엄마가 ‘나쁜’ 엄마 혹은 ‘나쁜’ 여성 섹슈얼리티를 상징하는 카밀라로부터 딸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보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만약 로라의 죽은 어머니가 로라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면, 그녀가 자기 자신을 “네 어머니”라는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 게다가 “암살”이라는 단어 역시 특이하며, 무엇보다 텍스트에서 “숨어 있는 암살범”을 언제나 조심하던 인물은 카밀라이다.⁷² 피에 젖은 카밀라의 모습을 본 로라가 “카밀라가 살해당하고 있다는 단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은 이상하지 않다.⁷³ 따라서 이 장면은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목욕을 하다”(bathed)라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피로 목욕을 하다’(bathed in blood)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 장면 바로 전에, 앞서 분석한 흡혈을 당하는 로라의 경험이 묘사되었고, 이때 로라는 물에 떠 있는

70 Davis (2004), p. 232.

71 Le Fanu (1872), p. 283.

72 Le Fanu (1872), p. 277.

73 Le Fanu (1872), p. 283.

듯한 느낌을 “우리가 목욕하고(in bathing) 있을 때 느끼는 유쾌하고 독특한 차가운 전율”에 비유한다.⁷⁴ 따라서 카밀라가 “목욕”한 피는 로라가 “목욕”하던 피-양수와 연결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피-양수로 목욕을 한 카밀라의 모습은 출산 시 엄청난 피와 양수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상에 막 ‘태어나’ 처음으로 “숫구친 빛” 속에서 로라는 출산한 어머니의 몸을 본 것이다. 그리고 로라의 머릿속에서 출산한 어머니의 몸은 곧바로 살해당한 몸과 직결된다. 생명을 탄생시킨 몸이 죽음을 상기시키는 몸, 혹은 시체와 동일시되었다. 로라를 쇼크와 패닉 상태에 빠뜨린 이 이미지는 텍스트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표출하는, 생과 사 사이의 존재로서 어머니의 몸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카밀라」에서 억압되어야 하는 공포의 대상인 뱀파이어는 아이를 배고,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몸, 그 자체를 현현한다. 여기서 뱀파이어와 어머니의 몸을 연결하는 주된 매개체는 피이다. (뱀파이어) 태아는 (뱀파이어) 어머니의 피-양수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뱀파이어) 아이는 (뱀파이어) 어머니의 피-젖을 먹는다. 뱀파이어가 흡혈할 때 입가에서 시작하여 몸을 적시며 흐르는 피는 출산의 순간을 상기시킨다.⁷⁵ 이렇듯 반복되는 피의 이미지는 뱀파이어와 어머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와 불가분한 어머니의 몸을 연결하여, 아브젝트로서 어머니의 몸을 발로한다. 하나가 되자는 카밀라의 사랑의 속삭임에 대한 로라의 본능적 혐오와 거부감은 ‘나’를 집어삼키는 어머니에 대한 주체의 거리두기 반응인 것이다. 하지만

74 Le Fanu (1872), p. 282.

75 물론 이때 피는 생리혈의 재현이기도 하다. 크리드는 페넬로페 셔틀(Penelope Shuttle)과 피터 레드그로브(Peter Redgrove)의 연구를 바탕으로 뱀파이어 신화가 “어린 여성의 초경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과 의례로 해석”되었다고 말한다[Creed (1993), p. 63]. 헬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카밀라의 출현을 “청소년 화자의 초경”을 상징한다고 보았다[Heller (1996), p. 82]. 동시에 크리드에 따르면 “생리혈은 처녀막 출혈”과도 연결된다[Creed (1993), p. 67]. 생리혈, 처녀막 출혈, 그리고 출산 시 출혈은 모두 여성의 재생산 가능한 몸을 상기시킨다.

로라의 무의식적 끌림에서 알 수 있듯,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지우는 어머니의 “힘은 질식시키듯 숨이 막히면서 동시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⁷⁶ ‘나’라는 독립적 주체로 구분되지 않는 자아는 타인과의 거리로부터 오는 외로움, 결핍, 갈증으로부터 안전하다. 따라서 어머니의 몸은 “매력적이지만 무섭고,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살해하고, 마음을 사로잡지만 아브젝트이다.”⁷⁷ 크리드가 정확히 지적했듯, 크리스테바는 “차이가 사라진 상태의 공포뿐만 아니라 매력 또한 강조하고 있다.”⁷⁸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몸은 계속적으로 아브젝시옹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크리스테바가 분석한 종교 의식의 역할이다. 크리스테바는 모든 종교의 “오염에 대한 의식”(the rituals of defilement)의 목적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머니 안으로 돌이킬 수 없게 가라앉는 것에 대한 주체의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⁷⁹ 즉, 이 의식들은 “언어와 매우 위계적인 종교 제도를 통해,” 불안정해진 “기호학적 권위와 상징적 법 사이의 경계선을 그려” 어머니의 몸을 다시금 억압함으로써 상징계의 분계선을 지킨다. 이 맥락에서 「카밀라」가 아브젝트인 어머니의 몸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카밀라」는 차이를 지우는 어머니와의 하나됨이라는 아이디어가 주는 매혹과 공포를 상기시키면서, 결국 어머니의 몸을 ‘괴물’이라는 용어로 정의한 후 다시 추방하여 상징계의 질서를 정화하고 회복하는 오염에 대한 의식을 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의식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 카밀라에게는 이미 얼마나 많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가늠하기도 힘든 뱀파이어 아이이자 뱀파이어 어머니인 여성들이 있다. 이들은 단지 겉모습으로 ‘일반적인’ 여성들과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애초에 상징계의 언어로 정의내리고 고정시킬 수조차

76 Kristeva (1982), p. 13.

77 Kristeva (1982), p. 54.

78 Creed (1993), p. 10.

79 Kristeva (1982), p. 64.

없기에 더욱 위협적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타자와 구분되는 전통적 주체로 위치되지 않는다. 카밀라로 대표되는 이들의 영역은 어머니와의 하나됨, 즉 차이가 무화되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독자적 정체성은 그 의미를 잃는다. 그렇기에 카밀라는 로라에게 “내가 너에게 가까워질수록, 너는 차례로 다른이들에게 가까워질거야.”라고 말한 것이다.⁸⁰ 로라는 카밀라를 사랑함으로써, 카밀라-어머니와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하나됨은 곧 다른 뱀파이어 어머니-아이와의 하나됨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누가 로라이고 누가 카밀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어머니이고 누가 아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카밀라의 흡혈로 인해 뱀파이어 아이-어머니로 ‘재탄생’한 로라는 자궁과 같은 공간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⁸¹ 이 ‘자궁’이 바로 나/너, 안/밖의 경계를 무시하는, 차이를 무화시키는 뱀파이어 어머니-아이의 공간이다. 따라서 뱀파이어 어머니-아이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완전무결한(integral) 주체성의 용해”를 의미한다.⁸² 이들은 사이의 존재로 그 자체로 상징계의 경계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잠재적 어머니의 몸을 가진 모든 여성은 누구나 뱀파이어 어머니-아이, 즉 사이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4. 나가며: 언제나, 이미 뱀파이어인 여성

스토다트, 셸리 셔틀워스(Sally Shuttleworth), 브램 데이크스트라(Bram

80 Le Fanu (1872), p. 263.

81 Le Fanu (1872), p. 282.

82 Hyun-Jung Lee (2006), “‘One for Ever’: Desire, Subjectivity, and the Threat of the Object in Sheridan Le Fanu’s *Carmilla*,” *Vampires: Myths and Metaphors of Enduring Evil* (ed. by Peter Day), Amsterdam; New York: Rodopi, p. 30.

Dijkstra)를 포함한 여러 비평가들은 빅토리아 시대, 가부장적 제국주의 사회에서 어머니인 상태(motherhood) 혹은 재생산가능한 여성의 몸이 엄청난 불안을 내포한, “강력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영역”이었음을 밝힌다.⁸³ 어머니가 되는 것은 당시 여성의 가장 큰 의무이자 신성한 임무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억압하고 있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의 몸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즉, 담론에서의 어머니는 육체가 없는 천사로 가정의 정신적 수호자가 될 수 있었지만, 실제 존재하는 어머니의 몸은 아이를 배고, 낳고, 기르는 그 모든 육체적 어머니 되기의 과정을 통해, 허상 아래 감춰진 통제되지 않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불안을 담지하였다. 성스러운 천사로서의 어머니는 사실 “재생산 기능과 이에 수반한 성적 욕망에 대한 그녀의 퇴행적 복종의 결과로 끊임없이 그녀의 체내에서 손실된 피를 보충하고자 피에 대한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지닌,” “과도한 섹슈얼리티를 가진 여성, 즉 뱀파이어”와 동일한 인물임을 그녀의 몸은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⁸⁴ 어머니의 몸을 둘러싼 논의는 어머니와 아이의 매우 긴밀한 연결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빅토리아 시대 후반의 제국주의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세계와 가정에서 가부장의 성행위 능력의 쇠퇴에” 대한 우려와 연결되었다면, 어머니는 보다 직접적으로 후손의 퇴화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졌다. “어머니의 [도덕적, 육체적] 죄는 감춰질 수 없는 것”이어서 아이에게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⁸⁵ 결국 어머니의 몸은 가부장제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철저히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 관리와 통제의 궁극적 목표는 카밀라의 몸을 불에 태워 그 재를 강물에 뿌린 것처럼, 어머니의 몸 자체를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마지막에 로라가 듣는 카밀라의 “발소리”는, 삶과 죽음, 안과 밖, 나와 너의

83 Shuttleworth (1992), p. 31.

84 Bram Dijkstra (1986), *Idols of Perversity: Fantasies of Feminine Evil in Fin-de-Siècle Cultur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334.

85 Shuttleworth (1992), p. 37.

경계를 무너뜨리는 어머니의 몸의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드러낸다.

로라의 아버지는 영국인으로서 스티리아의 고립된 성에서 작은 영국을 만들고자 하였다. 비록 영국인 아버지와 스티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로라는 한 번도 영국에 가 본 적이 없지만, 로라의 아버지는 “잠재적 좋은 영국 어머니”인 그녀에게 끊임없이 영국적인 것을 불어넣었다.⁸⁶ 우선 아버지와 로라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반은 애국적 동기로, 그리고 나머지 반은 영어가 [그들] 사이에서 죽은 언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일” 영어를 쓴다.⁸⁷ 셰익스피어는 그가 종종 크게 읽고 즐겨 인용하는 작가이다. 더구나 그는 전형적인 영국인 신사답게, “[영국의] 국민음료[인 차]가 커피 그리고 초콜릿과 함께 정지적으로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언제나 차 마시는 시간을 잊지 않는다.⁸⁸ 로라의 아버지는 동유럽의 스티리아라는 “과거, 세상의 아침, 진화-전 세대”의 원시주의를 “태양빛으로 부르익어 가는 결실의 땅, 진화론적 초월의 품에 안겨 있는 서양 세계”의 선두에 서 있는 영국제국이 영어와 셰익스피어와 차로 문명화하여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낸다.⁸⁹ 그러나 그의 야심찬 계획은 카밀라의 침입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좋은 영국 어머니가 될 로라와 작은 영국인 아버지의 성, 둘 다에 ‘침입’한 뱀파이어 카밀라는 아델 헤펠-토마스(Ardel Haefele-Thomas)와 브룩이 지적하듯, 역식민지화(reverse-colonization)에 대한 공포의 표상이다. 하지만 카밀라가 이 성에 침입하게 된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녀는 언제나 성 안의 소녀들-로라와 버사-의 초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카밀라는 몰래 집 안에 숨어들어 여성을 공격

86 Marilyn Brock (2009), “The Vampi and the Good English Mother: Female Roles in Le Fanu’s *Carmilla* and Stoker’s *Dracula*”, *From Wollstonecraft to Stoker: Essays on Gothic and Victorian Sensation Fiction* (ed. by Marilyn Brock),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p. 122.

87 Le Fanu (1872), p. 245.

88 Le Fanu (1872), p. 256.

89 Bram Dijkstra (1986), p. 335.

하는 드라큘라와 다르다. 버사와 로라, 어머니를 일찍 잃은 두 소녀는 모두 그녀들을 찾아와 줄 여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마치 이 부름에 응답 하듯 그녀들 앞에 뱀파이어 어머니이자 아이인 카밀라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제국을 무너뜨린 자는 외부의 뱀파이어가 아니라, 집 안의 여성들이다. 그러므로 카밀라의 처형이 “제국주의를 위해 몸과 영혼을 바칠 수 있는 이념적,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적합한 여성을 위한 길을 열어 준다”는 스토다트의 해석은 옳지 않다.⁹⁰ ‘집 안의’ 여성은 사실 잠재적 좋은 영국 어머니라는 허상이 아니라 언제나 이미 뱀파이어였다.

참고문헌

자료

- Le Fanu, Joseph Sheridan (1872), “Carmilla,” *In a Glass Darkly* (ed. by Robert Trac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43-319.
 Stoker, Bram (1897), *Dracula* (ed. by Maud Ellman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논저

- 김진옥(2015), 「레퍼뉴(Le Fanu)의 『카르밀라』(Carmilla): 뱀파이어 어머니」, 『신영어영 문학』 60, 신영어영문학회, pp. 91-106.
 손영희(2021), 「르 파누의 『카밀라』에서 레즈비언 뱀파이어와 어머니의 귀환」, 『19세기 영어권 문학』 25, 19세기영어권문학회, pp. 65-94.
 한혜정(2012), 「괴물, 어머니, 소녀: 『고블린 시장』과 『카르밀라』의 로라」, 『외국문학연구』 48,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p. 345-366.
 Auerbach, Nina (1995), *Our Vampires, Ourselv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rock, Marilyn (2009), “The Vampi and the Good English Mother: Female Roles in Le Fanu’s *Carmilla* and Stoker’s *Dracula*,” *From Wollstonecraft to Stoker: Essays on Gothic and Victorian Sensation Fiction* (ed. by Marilyn Brock), Jefferson: McFarland

90 Stoddart (1991), p. 31.

- & Company, pp. 120-131.
- Case, Sue-Ellen (1991), "Tracking the Vampire," *Differences* 3, Duke University Press, pp. 1-20.
- Craft, Christopher (1984), "'Kiss Me with Those Red Lips': Gender and Inversion in Bram Stoker's *Dracula*," *Representations* 198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07-133.
- Creed, Barbara (1993), *The Monstrous-Feminine: Film, Feminism, Psychoanalysis*, London: New York: Routledge.
- Davis, Michael (2004), "Gothic Enigmatic Signifier: The Case of J. Sheridan Le Fanu's 'Carmilla'," *Gothic Studies* 6, International Gothic Association, pp. 223-235.
- Dijkstra, Bram (1986), *Idols of Perversity: Fantasies of Feminine Evil in Fin-de-Siècle Cultur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efele-Thomas, Ardel (2012), *Queer Others in Victorian Gothic: Transgressing Monstrosity*,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 Halberstam, Judith (1993), "Technologies of Monstrosity: Bram Stoker's *Dracula*," *Victorian Studies* 36, Indiana University Press, pp. 333-352.
- Heller, Tamar (1996), "The Vampire in the House: Hysteria, Female Sexuality, and Female Knowledge in Le Fanu's 'Carmilla,'" *The New Nineteenth Century: Feminist Readings of Underread Victorian Fiction* (ed. by Barbara Leah Harman and Susan Meyer), New York: London: Garland, pp. 77-95.
- Jones, David J. (2014), *Sexuality and the Gothic Magic Lantern: Desire, Eroticism and Literary Visibilities from Byron to Bram Stoker*,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Kitson, Peter (2016), "Oriental Gothic," *Romantic Gothic: An Edinburgh Companion* (ed. by Angela Wright and Dale Townshen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pp. 167-184.
- Klein, Melanie (1946), "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s," *Envy and Gratitude and Other Works, 1946-1963*, New York: The Free Press, pp. 1-24.
- Klein, Melanie (1935), "A Contribution to the Psychogenesis of Manic-Depressive States," *Love, Guilt and Reparation and Other Works, 1921-1945*, New York: The Free Press, pp. 262-289.
- Kristeva, Julia (1982),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by Leon S. Roudie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al, Amy (2007), "Unnameable Desires in Le Fanu's *Carmilla*," *Names* 55, Routledge, pp. 37-52.
- Lee Hyun-Jung (2006), "'One for Ever': Desire, Subjectivity, and the Threat of the Abject in Sheridan Le Fanu's *Carmilla*," *Vampires: Myths and Metaphors of Enduring Evil* (ed. by Peter Day), Amsterdam: New York: Rodopi, pp. 21-38.
- Malchow, Howard L. (1996), *Gothic Images of Race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ichelis, Angelica (2003), "'Dirty Mamma': Horror, Vampires, and the Maternal in Late Nineteenth-Century Gothic Fiction," *Critical Survey* 15, Berghahn Books, pp. 5-23.
- Palmer, Paulina (1991), *Lesbian Gothic: Transgressive Fictions*, London and New York: Cassell.
- Servitje, Lorenzo (2021), *Medicine Is War: The Martial Metaphor in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New York: SUNY Press.
- Shuttleworth, Sally (1992), "Demonic Mothers: Ideologies of Bourgeois Motherhood in the Mid-Victorian Era," *Rewriting the Victorians: Theory, History, and the Politics of Gender* (ed. by Linda M. Shires), London: Routledge, pp. 31-51.
- Signorotti, Elizabeth (1996), "Repossessing the Body: Transgressive Desire in 'Carmilla' and *Dracula*," *Criticism* 38,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pp. 607-632.
- Stoddart, Helen (1991), "'The Precautions of Nervous People Are Infectious': Sheridan le Fanu's Symptomatic Gothic," *The Modern Language Review* 86, Modern Humanities Research Association, pp. 19-34.
- Tracy, Robert (1993), "Introduction," *In a Glass Darkly* (ed. by Robert Trac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vii-xxviii.
- Veeder, William (1980), "Carmilla: The Arts of Repression,"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22,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197-223.

원고 접수일: 2022년 10월 19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1월 8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8일

ABSTRACT

Bloody Vampire (and) Mother's Body

Han, Heeseung*

The Representation of the Mother's
Body as an Abject in Le Fanu's "Carmilla"

By reading both Carmilla, a female vampire, and her victim, Laura, as a mother figure in Joseph Sheridan Le Fanu's "Carmilla," this paper aims to reveal that mother's reproductive body is closely connected to vampirism in the text, and to investigate the threat that the mother's body poses to the Victorian patriarchal empire as an abject that breaks the subject's boundaries. While Carmilla as a lesbian lover has been widely studied, Carmilla as a mother has not. Focusing on Carmilla as a vampire mother, this paper further suggests that not only Carmilla but all women's reproductive body is related to the vampire's 'reproduction.' Specifically, based on Julia Kristeva's theory on the abject, this paper explores how the text connects the vampirism and the woman's body which gets pregnant, delivers, and rears a child at the breast.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that the vampire mother's body as an abject leads to a new perception of a mother other than the Angel in the House who serves the patriarchal family-empire.

Keywords Joseph Sheridan Le Fanu, "Carmilla," Vampire, Mother, Mother's Body, Julia Kristeva, Abject

—

* Lecture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